

국회, 16개 상임위원장 선출 완료

농해수위원장 황주홍...광주·전남 유일 운영위원장 홍영표, 법사위원장 여상규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16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했다.

운영위원회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가 선출됐다. 운영위원회장은 20대 국회 전반기에선 자유한국당이 가져갔으나 이번 원 구성 협상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몫으로 배분됐다.

광주·전남 지역구 의원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민주당 황주홍 의원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선출됐다.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정부위원장은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각각 맡게 됐다.

또 민주당 정성호 의원과 노응래 의원은 각각 기재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뽑혔다. 같은 당 안규

백 의원은 국방위원장에, 이재근 의원은 전혜숙 의원은 각각 행안위원장, 여가위원장을 맡았다.

한국당에선 김학용(환경노동위원장)·강석호(외교통일위원장)·홍일표(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명수(보건복지위원장)·박순자(국토교통위원장) 의원이 각각 해당 상임위원장에 뽑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선출됐다. 정보위원장은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이 선임됐다.

국회는 또 본회의에서 유인태 전 의원을 신임 국회 사무총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승인했다.

한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에서 분리돼 국회법 개정이 필요한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선출은 26일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국회가 지난 13일 국회의장단을 선출한 데 이어 상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서 20대 국회 후반기 첫 임시국회인 7월 국회가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다.

애초 19일에 예정된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원구성 지연 등의 영향을 받아 일정이 23일로 늦춰졌다.

23-25일에는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등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잡혀있다. /김진수기자 jskim@kdaily.com

재선 의원... '농어업예산 지키미' 별칭도

●황주홍 농해수위원장은



하는 등 '농어업예산 지키미'라는 별칭도 얻었다.

미국 미주리대 정치학 박사 출신으로 한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지냈다. 부인 옥경희 씨와 1녀.

19대 국회 때부터 줄곧 전문 분야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맡아온 농어업 전문가로 분류된다.

그동안 생산과잉과 재고증가에 따른 쌀값 폭락 문제의 해법으로 해외원조와 생산량 조절 시스템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또한, 쌀 해외 무상원조의 길을 제시하며 우리나라가 식량원조협약에 가입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작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겸임하면서 재정 당국과 동료 의원들을 설득해 문재인 정부 들어 삭감된 농어업예산을 오히려 5천억원 넘게 증액

▲강진(66) ▲광주외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미국 미주리대 정치학박사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남 강진군수 3선 ▲민주당당장 정책위 부의장 ▲19·20대 국회의원 ▲국민의당 최고위원 ▲민주당화당 정책위의장

/김진수기자 jskim@kdaily.com

광주·전남 국회의원 상임위 '쏠림' 심화

18명 중 10명 농림·행안·외통위 물려 기재·국방·보복·여가위는 1명도 없어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 결과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의 특정 상임위원회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18명의 광주·전남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의원이 배정된 상임위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4명이 소속됐다. 이어 행정안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도 각각 3명의 의원이 활동하게 됐다.

실제로 ▲농림위 황주홍(평화), 이계호(민주), 서상석(민주), 손금주(무소속) 의원 ▲행안위 주승용(바른미래), 권은희(바른미래), 정인화(평화) 의원 ▲외통위 박주선(바른미래), 천정배(평화), 이정현(무소속) 의원이 배정됐다.

이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송갑석(민주), 이용주(평화) 의원 등 2명이 배정됐다.

이밖에 1명이 포함된 상임위는 ▲법제사법위 박지원(평화) ▲정부위 장병완(평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김경진(평화) ▲문화체육위 최경환(평화) ▲국토교통위 윤영일(평화) ▲환경노동위 김동철(바른미래) 등 6곳이었다.

이처럼 농림위, 행안위, 외통위에 전체 18명의 국회의원 중 50%가 넘는 10명의 국회의원이 배정되는 등 '쏠림' 현상이 나타나며 따라 ▲기획재정부 ▲국방위 ▲보건복지위 ▲여성가족위 소속 광주·전남 국회의원은 단 1명도 없었다.

이밖에 중복 소속이 가능한 위원회 중 국가 예산의 배분에 큰 영향을 끼치는 예결위원회는 지난 6·1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민주당의 서상석, 송갑석 의원과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최저임금 공약 못 지켜 죄송”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의결과 관련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연합뉴스

의원, 평화당의 정인화 의원 등 4명이 포함됐다.

또 중복이 가능한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에는 '평화와 정의' 원내대표인 장병완 의원이 당연직으로 활동하게 됐다.

이와 관련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광주·전남의 광역·기초자치단체들의 다양한 행정 민원과 국고 유치사업 등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여러 상임위원회에 포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지역

구 국회의원이 없다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그것도 미진하다면 타 지역에서 활동하는 광주·전남 출신 국회의원들을 찾아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례대표 의원 중 광주·전남 출신 의원들의 소속 상임위는 ▲정부위 최은열(민주), 추혜선(정의) ▲문화위 조훈현(한국), 이동섭(바른미래) ▲보건복지위 윤소하(정의) ▲환경노동위 신보라(한국) 등이었다. /김진수기자 jskim@kdaily.com

문의장-여야 원내대표 상건례 “국회가 하나로 뭉쳐 할 일 많아”

문희상 국회의장은 16일 “20대 하반기 국회에 통합의 국회라고 할까, 힘을 합쳐서 하나로 뭉쳐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상건례를 겸한 주례 회동을 처음 하고서 “국회가 앞장서서 협치를 하고 민생을 해결할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연합뉴스

민주 전대 '김부겸 변수' 다시 부상

유력 주자들 '표밭 다지기'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 가도에 막판 '김부겸 변수'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애초 유력 당권주자로 거론됐던 김 장관은 개각 범위와 맞물려 출마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됐지만, 본인 의사가 여전히 강한 것으로 전해져 막판 개각 포함 여부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특히 다른 유력 주자로 거론되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도 김 장관 거취를 지켜본 뒤 출마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김 장관의 행보가 결국 당내 주류인 친문(친문재인) 주자 구도를 결정 지으며 전대 판세를 뒤흔들 것이라 분석이 나온다.

실제 당내에선 후보등록 마감일인 21일 이전 개각이 단행될 경우 김 장관 거취가 자연스럽게 정리되며 전대 구도가 운곽을 잡을 가능성과 함께 야에 개각이 후보 등록 이후로 밀리며 김 장관이 자신의 거취를 결단하게 여지를 둘 수 있다는 분석까지 흘러나온다.

사실상 출마 쪽으로 기울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최재성 의원(4선)의 거취도 이전 총리의 출격 여부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연합뉴스

당대표 출마를 결정할 주자들은 중앙위원들과 접촉면을 넓히며 '표밭 다지기'에 나섰다, 라디오 출연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 등을 통해 비전, 공약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전남 당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김진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유능한 경제정당과 야당과의 전략적 협치를 강조했다. 김 의원에 앞서 제일 먼저 출마 선언을 한 재선의 박법계 의원은 중앙위원들과 접촉을 넓히는 데 힘을 쏟고 있다.

'8·25 전국대의원대회(전대대회)' 후보 등록일(20-21일)이 다가오면서 아직 공식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후보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최근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이자 서울대 교수인 송영길 의원(4선)과 박영선 의원(4선)은 각각 17일 이후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은 활발한 대외 활동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세몰이에 나섰다, 박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을 100년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공정함과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연합뉴스

송갑석 “北여종업원 탈북 진실규명해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갑)은 16일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북한 여종업원 기획탈북 의혹과 관련해 현 정부가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건은 과거 국정원이 총선을 앞두고 벌인 기획탈북이라는 사실이 유엔 조사를 통해 공식 확인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뉴스



그는 “비록 전 정부의 일이지만 (현 정부가) 사실을 규명하려는 철저한 노력 없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정만 해서는 안 된다”며 “정보기관이 자행한 적폐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jskim@kdaily.com

세정 공인 중개사무소

광주 광산구 송정동 871-35
010-7574-9985 / Fax. 062-941-3006

◆ 상가 ◆
◆ 광주시광산구송정동대지101평 건평 160평 3층상가건물 투자적합 매매가 ▶9억1천만 조정안됨

장성 나노단지 근린상가 2중현제 6차선점 ▶800평당 350만

◆ 과수원 ◆
나주시 영산동 ▶2530평당15만원 나주배 특구 투자처 확실

◆ 원룸 ◆
광주 광산구 월계동 대80평 룠19실 2014년 준공, 시티 목욕탕 옆, ▷용2억 보1억 월520만 ▶매가 9억3000만

◆ 교회(권장업종:교회및사무실)◆
동림동 삼익아파트 입구 5층 60평 매매가 ▶1억7000만원 승강기있음

바다가편선부지적합 무안군현경면송정리430번지 외10필지 약2600 평당35만 투자가치좋은, 바다접함, 신설해안도로보상중, 무안공항에서 2.5k지점현제축양장 임대1년1000만원

시대 / 시외 / 물건 접수바랍니다

임야삽니다

2층 주택, 매매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번지
- 대지106평, 건물42평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혁신도시에서 15분, 신북에서 5분
- 집마당까지 차량진입가능, 텃밭(10평)있음
- 시세 - ~~1억4000만원~~ 사정상 싸게 팝니다.
- 일시불 8400만원

H. 010-6834-7400

담당 김태산
010-9374-8585

급매 전문

급매물리스트

【상가건물】

- ▶ 광주 북구 두암타운 인접 6미터도로코너 대지165㎡(50) 단층 점포 급매3억
- ▶ 광주역앞 대로변 최고요지 대지165㎡(50) 건800㎡(242)급매8억5,000(보6,000)월400포함
- ▶ 광주 남구 농협월산지점 부근 코너 대지288㎡(87) 건평500㎡(151)급매5억9,000(보7,500)월200포함
- ▶ 광주동구 계림동5거리 4차선대로변 최고요지 대지170㎡(51)단층상가매가6억6,000
- ▶ 광주 서구 양동시장 2차선도로변 코너 대지400㎡(121) 건평350㎡(105)단층 점포4칸 급매가6억
- ▶ 광주 동구 원불교 부근 중심상업지 대지415㎡(125) 4층상가 매가10억 월세용 및 투자가치최고

【토지】

- ▶ 광주 남구 진월동 30미터 계획도점 보전녹지 15,000㎡(4,500)3.3㎡당15만원
- ▶ 광주 동구 용산동 보전녹지 30,000㎡(9,000) 3.3당 50만원 투자가치 최고
-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봉황리 2차선도로점 보전관리 53,000㎡(16,000)3.3당5만원
- ▶ 전남 영암군 시흥면 광주 30분 2차선도로변 6,600㎡(2,000) 3.3당 8만원
- ▶ 함평 해보 빛고을 산단인접 2차선 도로점 평지 23,000㎡(7,000)3.3당 20만원

※빌딩, 상가, 주택, 임야등 판매물 바로계약합니다※ (지역구관) 매수고객 다수 대기중

*다음카페[즐거우부동산세상]를 클릭하면 다양한 매물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급매부동산 [즐거우부동산] 유재관 대표공인중개사 010-6495-3787
광주 동구 제봉로198(대인동312-26)